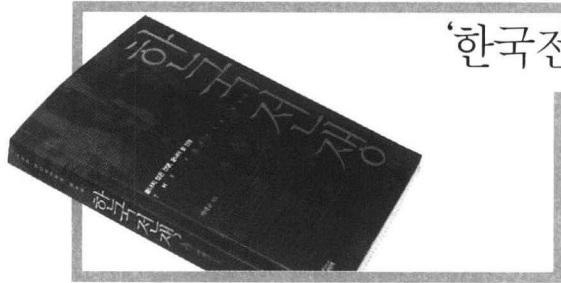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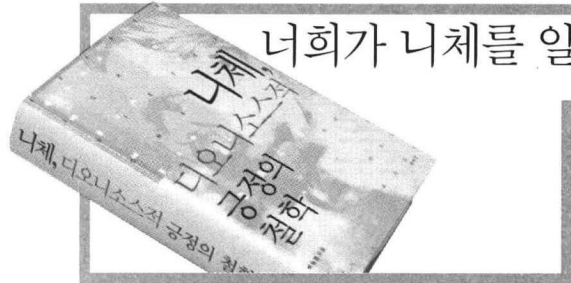


## 권력 밖으로 나온 '한국전쟁'



《한국전쟁》 박태균 지음 | 책과함께 | 408쪽 | 값 16,800원

## 망치를 든 멧진 대변인, 너희가 니체를 알아?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백승영 지음 | 책세상 | 720쪽 | 값 27,000원

사실이 있는데 왜 알려지지 못하는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의심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역사교과서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그 중 한국전쟁은 2쪽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에 의한 전쟁연구는 있었지만,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는 금기시되었다.” 《한국전쟁》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본만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자국민을 상대로 교과서를 왜곡한다. 특히 ‘한국전쟁’은 남과 북 정권 모두에게 자신의 합리성을 선전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근안의 고문으로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함주명 씨가 21년 만에 간첩 굴레를 벗었듯이, 잊지 말았어야 했을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된 게 이 땅의 현실이었다.

저자는 남쪽에서 세뇌하는 ‘6·25 사변’도, 북쪽에서 주장하는 ‘민족해방전쟁’도 아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실체에 접근한다. 이 책의 기본방향은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을 유명하게 한 블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의 입장, 즉 미국의 책임이라는 외적 기원론과 이대근, 서중석, 박명림, 김동춘 등에 의해 국내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내적 기원론을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양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전쟁 전반을 아우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론서 수준은 결코 아니다. 저자는 전쟁 초기를 ‘실패의 연속과정’으로, 전쟁 후반부를 ‘포로문제’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 불행하게도 잊지 말았어야 했지만 ‘있을 수 있는’는 사실 그 자체와, 누구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 참혹한 이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를 그려낸다.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권력에 길들여진 기존의 ‘한국전쟁’에 관한 담론”과는 다른 사실과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신동섭 기자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하며 서구사상의 뿌리였던 이성중심주의의 형이상학적 주체마저 심판대에 올렸다. 어떤 생성도 없는 영원불멸의 세계를 염원하며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물 자체의 세계’ ‘절대정신의 세계’에서만 진리를 찾으려 했던 고루한 철학자들은 죽음의 설교만을 퍼뜨리는 신과 한통속이었던 것. 전복과 해체로 대표되는 니체 철학은 이후 인간학적(바타이유), 심리학적(라캉), 역사학적(푸코), 형이상학 비판(하이데거, 데리다) 등으로 계승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원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 달린 부정적 꼬리표는 참으로 고약한 데가 있다. “모든 근대적 성과를 부정하고 해체하려 했던 대안 없는 해체주의 철학자, 나치 광풍의 토대를 닦은 전체주의 사상가”라는 평가가 사후 100여 년 지난 현재까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은 니체에게 붙은 고약한 꼬리표를 떼어내겠다는 의지만만한 철학서다. 니체 고유의 부정적 서술방식으로 지금껏 체계화되지 못했던 니체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는 니체의 ‘망치’를 빌려 그의 사유 전체를 오독해 버린 꼬리표, 그것을 해체하고 전복하고 있다. 철학을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니체는 “철학이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삶으로부터 나쁜 기운을 덜어주는 철학, 삶으로부터 죄의식을 건어내는 철학, 삶을 긍정하는 철학, 삶을 사랑하는 철학은 가능할까라는 니체의 즐거운 물음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이란 없다”는 문장으로 정리된다. 책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니체철학의 요체라고 하며, 니체철학의 중심 축인 방법론, 존재론, 인식론, 도덕론, 예술론을 차례로 거치며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

박용두 기자

## 역사, 예술, 철학 담긴 다면적 예술품, 옥새



《옥새》 민홍규 지음 | 인디북 | 376쪽 | 값 55,000원

## 죽으면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가?



《세계모지문화기행》 박태호 지음 | 서해문집 | 352쪽 | 값 14,900원

동탁의 황제군에 맞서 싸우던 손견과 원소가 군막 부근 우물에서 궁녀의 시체를 발견한다. 궁녀의 목에 '수명우천 기수영장受命于天 既壽永昌' 이 새겨진 옥새가 걸려 있다. 이후 손견은 원소와 원수가 되기로 결심하고 옥새를 들고 강동으로 회군한다. "옥새를 손에 넣는 이는 나라를 얻는다"는 소리를 들은 탓이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연처럼 옥새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인장印章이다. 또한 서예, 회화, 조각, 전각, 금속공예, 동양철학,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다면적 종합예술품이다.

현재 한·중·일 3국에서 유일하게 옥새제작을 할 수 있는 전각장 민홍규 씨의 《옥새》는 옥새의 역사와 제작방법, 옥새에 깃든 정신세계 등을 설명하는 옥새 종합 해설서다. 특히 위조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의 옥새전각장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던 제작 비전 '영새부鑿鑿傳' 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예술사료로서 빛을 발한다. 영새부는 옥새전각장에 대한 경외감부터 이끌어낸다. 전각과 서예 재주는 기본이다. 여기에 동양철학과 미학을 섭렵하지 못한다면 해낼 수 없는 작업이다. 이것도 모자라 통치자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 천지자연의 힘을 농축하는 능력까지 요구받는다.

옥새는 조각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 임금이 둘로 나타나는 기운이 돌지 모르니 손잡이 머리를 2가지로 조각하는 건 금기다. 손잡이, 인면이 아무리 훌륭히 완성됐어도 전각장은 주물 과정에서 깨지거나 갈라지지 않기를 매순간 기도해야 한다. 옥새는 곧 통치권자이자 국가, 나아가 백성까지 상징하니 그 깨짐이 나라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옥새 자체가 다층의 상징을 담은 문화예술품인만큼 단순한 옥새설명서란 틀을 버리고 동양역사문화서라는 시야로 볼 때 독자들이 언어가는 것이 배가 된다. 동양미학, 동양고전, 철학, 서예, 전각 등 다양한 공부거리를 남겨주는 흔치 않은 저작물이다.

김청연 기자

저자 박태호 씨가 장묘문화 전문가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1년부터 10여 년 동안 서울시립 장묘시설을 담당하면서부터다. 그는 장묘시설을 관리하면서 우리나라 장묘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됐다. 그 분야에 대해 좀더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자 지천명의 나이에 성균관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의 열정은 전 세계 장묘문화를 탐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세계모지문화기행》은 발품을 팔아 수집한 많은 자료와 직접 집필한 방대한 분량의 원고, 죽음을 배움하며 살아온 세월에서 체득한 산지식이 융합된 책이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20여 곳의 다양한 묘지들은 수백 장의 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저자는 특히, 좁은 땅을 보다 넓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시민의 사후 선택을 존중하는 유럽의 공무원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복지를 구현하는 사람들, 생활의 터전 가까이 더 좋은 장묘시설을 세우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자세히 보여준다.

잘 알려진 프랑스 파리의 페르-라셰즈, 몽 파르나스 묘지 등에서 프랑스인의 문화적 자부심이 사후에까지 연결되는 저력을 본 저자는 현대적인 종합장례시스템이 잘 갖춰진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장묘문화, 빼어난 자연경관과 조화된 묘지문화를 자랑하는 스웨덴과 스위스의 묘지들, 세계 유일의 묘지 도시 '콜마' 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둘러보고, 아시아의 장묘시설과 체육시설을 한곳에 설치한 일본 오사카 돈다바야시와 중국의 장묘문화를 탐방한다. 마지막으로 국내로 돌아와 천안공원묘지, 서울 주변의 납골당, 제주 양지공원을 돌아보며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가진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핀다. 장묘관련 관계공무원과 조경·건축 등의 전문가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다양한 장례법을 정리한 부록도 있다.

홍이현 기자